

머리글 정보세계정치의 이해

정보세계정치는 아직 생소한 용어이다. 풀어서 쓰면 정보화 시대의 세계정치 또는 정보혁명과 세계정치이고,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정보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기술,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변수가 세계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국제정치학의 한 분야이다. 사실 이들 변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진전으로 인해서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20세기 국제정치학이 군사안보 연구와 정치경제 연구를 양대 축으로 해서 진행되었다면, 21세기 국제정치학에서 정보세계정치는 그야말로 제3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보세계정치라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10편의 글을 실었다. 미디어, 기술,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변수가 어떠한 경로를 타고 국제정치학의 연구관심사로 들어와서 어떻게 연구주제로서 설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이 글들을 세상에 내놓는 동기이다. 이 글들은 정보세계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그 현상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엽에 이르러 어떠한 변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환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의 <정보세계정치의 기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세계정치 현상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 보았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문화적, 개념적, 이념적 기원을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쳐서 나타났던 지식정보문화와 근대 기술 개념의 수용, 그리고 근대적인 의미의 언어 민족주의 등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1장의 “한국 인터넷 문화의 역사적 추적: 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은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인터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사용의 문화적 특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탐구한 주제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네이버 지식iN의 ‘지식검색’이나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集合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 방식의 지식정보 협업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도대체 한국의 인터넷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대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식정보 문화론의 시각을 취함으로써 사회과학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적 ‘분석’과 ‘설명’보다는 문화연구에서 원용하는 ‘이해’와 ‘해석’의 시도를 벌였다.

지식정보 문화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익-제도-관념의 구성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분석틀을 원용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해서 볼 때, 지식정보의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문화는 편찬·편집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업 행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협업의 성과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인센티브,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념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오늘날 한국 인터넷 문화의 기원을 이루는, 한국사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지식정보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과사전류 저작과 관련된 편찬·편집의 양태, 지식정보의 기여와 공유 및 소통의 제도적 메커니즘, 전통적인 유학적 지식관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대부들의 토론문화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2장의 “근대 기술 개념의 전파와 변환: 실학, 동서서기론, 개화론”은 주로 개념사의 관점에서 근대 서양의 기술 개념의 전파와 이에 뒤이은 기술 개념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시기에 이루어진 서양의 선진 문물 전파의 핵심에는 기술이 있었다. 여기서 논하는 기술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능이나 기예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근대 과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체계 일반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서양 기술이 상징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서양 문명 그 자체였다. 이러한 근대 서양의 기술이 전파되면서 당시의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서양 기술의 충격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기술은 현실적·개념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

서양 기술의 전파는 외래문물의 순탄한 수용과정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동태적인 과정이었다. 당시 서양 기술의 전파는 단순히 좀 더 발달한 외래의 문물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관과 충돌하였다. 실제로 기술 개념의 전파는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서양 문물을 수용하려는 세력과 좀 더 본격적으로 서양을 배우고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세력 간의 경쟁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 개념의 전파와 수용 문제는 그야말로 당시 한국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던 지식구조의 변환을 의미했다. 이러한 기술의 국제정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당시 서양 기술의 전파가 야기했던 변환을 실학과 동서서기론, 그리고 초기와 후기 개화론의 기술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의 “근대 인쇄 미디어와 언어 민족주의 형성: <독립신문>의 한글전용론”은 근대 신문의 도입이 언어 민족주의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였다. 19세기 후반 개화지식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된 근대적 인쇄 미디어는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근대 신문의 도입은 언어를 매개로 한 국민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언어를 매개로 한 국민정체성 형성의 이론적 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룬 사례는 <독립신문>이다. 1896년에 발간된 <독립신문>은 한글전용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조선 사회에 언어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독립신문>은 여러 기사를 통해 한문전용으로 대표되는 기존 지배질서를 부정하면서 한글사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설파하였고, 한글이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국가의 독립과 부강에 주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독립신문>이라는 근대적 미디어의 속성,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도왔던 한글사용, 그리고 한글이 표상하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인 동학을 펼쳐냈으며, 궁극적으로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인쇄 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당시 조선인들로 하여금 같은 말을 사용하고 이를 같은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동류의식, 즉 언어 민족주의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독립신문>은, 이러한 언어 민족주의의 관념이 당시의 근대적 개화사상과 접맥되는 통로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제2부의 <정보세계정치의 변환>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엽에 걸쳐서 나타났던 정보세계정치의 형성과 변환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정보세계정치의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터넷의 기원, 1980년대 나타났던 프랑스 문화외교의 변환, 역사적 맥락에서 본 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 운동, 그리고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나서는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살펴보았다.

제4장의 “냉전과 인터넷: 정보 미디어의 국제정치적 구성”은 오늘날 정보 미디어의 골격이 되는 인터넷의 국제정치적 형성 과정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터넷 미디어가 국

제정체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왔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적 변수가 인터넷 미디어에 미친 영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인터넷은 매우 분산적인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이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라는 집중의 관리방식이 결합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의 탄생은 냉전체제라는 국제정치적 산물이다. 냉전체제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미국의 핵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초기 인터넷의 윤곽이 잡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핵전략은 새로운 통신체제의 개발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기술적인 필요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로 이어졌다. 물론 냉전체제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며 거꾸로 개발과정 자체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분산적인 관리구조에 적합한 인터넷의 속성이 개발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 인터넷 개발사의 두 가지 사례가 냉전의 국제체제, 미국의 전략적 필요, 정보 미디어의 속성 등의 구성적인 상호작용이 인터넷의 이중적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1950년대에 소련의 최초 핵개발로 인한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 속에서 반자동지상환경(SAGE: 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대공방어체계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최초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출현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1960년대 소련의 핵역지력 획득으로 인해 미국이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지휘통제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ARPANET 개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외재적인 독립변수로만 취급되어 왔던, 인터넷이라는 정보 미디어가 국제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추적하였다.

제5장의 “프랑스 문화외교의 변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중심으로”는 1980년대 미테랑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프랑스 문화외교 변환의 배경과 내용 및 함의를 살펴보았다. 미테랑 정부는 양차 대전 이후 출범한 첫 좌파 정부였는데, 프랑스 전통의 국가 중심적 문화외교를 계승하였던 보수 정부와는 달리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외교 조직으로의 변환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변환은 정부의 진보적 성향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지구화로 인한 프랑스 문화권력의 하락을 그 배경에 깔고 있었다. 또한 양차 대전 이후 프랑스의 고압적인 문화외교 정책이 문화 식민주의라는 비판을 받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미테랑 대통령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과 함께 문화외교 조직을 정부가 민간 부문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그들은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외교의 경직성을 깨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환의 중심에 프랑스 어학원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가 있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883년 프랑스어 전파를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미테랑 정권 당시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지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프랑스 문화외교에서 프랑스어의 전파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 역시 미국의 문화패권으로 인한 영어 일변도의 전 세계적 흐름에 밀려 그 위상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었다. 미테랑 정부는 프랑스어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미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활용함으로써,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문화외교 조직을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환의 구체적인 과정과 함의를 네트워크 이론의 성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의 “신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NWICO)를 넘어서: 맥브라이드 보고서와 정보사회세 정상회의(WSIS)”는 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 모색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었던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NWICO 논쟁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의 흐름을 요청하는 맥브라이드 보고서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 열렸던 WSIS에서는 ICT가 핵심이 되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모색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사례는 정보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내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공통점을 있다. 그렇지만 ICT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두 사건에서 관찰되는 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에 관한 논의의 지형은 매우 달랐다. 다시 말해, 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 수립이 국민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였던 NWICO의 시대와는 달리, WSIS에 이르러서는 ICT의 발달과 보급을 바탕으로 등장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의 모색이 그야말로 전지구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관념-이익-제도라는 분석틀을 원용하여 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의 변환과 세계정치의 다층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NWICO와 WSIS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제도 구축 과정은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계정치 관념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역으로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출현과 이러한 과정에서 이익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의 부상은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제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보커뮤니케이션의 변수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학의 주요 분석단위인 국제체제, 국가, 개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파악되는 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의 변환은 21세기 복합 세계정치의 면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7장의 “세계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기구의 역할: ITU와 세계은행의 네트워크 전략”은 정보화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국제기구의 초국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 이전에는 각국 정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개발 간에 친화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와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의 DOT 대응팀(Digital Opportunities Task Force)의 출범으로 인해 개도국들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담론이 퍼져나갔다. 이와 함께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국제기구도 각국 정부와는 별개로 초국적 영역에서 활동을 벌였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전반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각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가 이러한 지식을 생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관찰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논의되는 ‘구조적 공백’과 ‘중개자’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공정책 네트워크’와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원용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담아내기 위해서 선정한 것은 서로 다른 운영 형태와 설립목적을 가진 두 국제기구인, ITU와 세계은행의 사례였다.

제3부의 <정보세계정치와 한국>은 앞서 펼친 정보세계정치의 역사와 쟁점에 대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세계정치의 실천전략을 고민한 세 가지 사례연구를 다루었다. 최근 전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영화와 드라마에 숨어있는 정보세계정치의 함의와 전략을 탐구하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제8장의 “국제 영화제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한국의 전략”은 국제 영화제에 담겨 있는 담론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취할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소프트 파워와 네트워크 권력의 접점으로서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영화제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 자본주의의 문화제국주의적 편향성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유럽형 국제영화제가 제시하는 대안적 가치인 비상업 영화에 대한 권위적 수상 시스템이, 영화제 내의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영화제와 영화제를 엮는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였다.

국제 영화제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를 최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 국제 영화제에 대한 검토로 이어갔다. 이러한 사례 검토를 통해서 의도한 바는 한국형 영화제의 모델이 제시할 수 있는 문화권력적 가치와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탐색이었다. 부산 국제 영화제의 성공 요인으로서 영화제 내 정부기관, 영화산업가,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조화롭게 엮어낸 네트워크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 동안 부산 국제 영화제가 고수해온 비경쟁 영화제로서의 특징이야말로 미국 중심의 세계 영화질서 내에도 나름대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비결이었으며, 유럽이 처놓은 영화제의 네트워크에도 수동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한국만의 영화제 담론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선택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담론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형 영화제가 관객이라는 행위자에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문화모델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였다.

제9장의 “일본 내 한류 네트워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본 내 한류의 현황을 한류의 전파 양상과 친한(親韓) 및 반한(反韓) 집단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외교의 시각에서 본 한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여 일본 내 한류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한류와 혐한류 세력의 형성과정과 담론 양상, 그리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 내 한류의 파생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내의 한국 기획사와 현지 기획사, 비기업 및 비정부 행위자의 연계를 통하여 구축된 일본 내 한류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한류라는 거대한 문화흐름을 일본 내에서 창출하고 정착시킴으로써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소셜 네트워크 이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일본 내 한류 및 혐한류 세력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일본 내 친한류와 혐한류 집단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성격과 사회인식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친한류와 혐한류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류가 향후 한국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 내 한류와 혐한류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공공외교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0장의 “소셜 미디어와 대중의 외교정책태도”은 소셜 미디어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정치학계와 커뮤니케이션 학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표출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형과 사회변동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비해 활성화된 대중의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에 의한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일상의 신변 잡거나 국내의 다양한 정치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고급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교정책 사안도 포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이들의 토론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집합행동으로도 전개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을 정치적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청중으로서 인식했던 기존 학계의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급정보를 학습하고 유포하며 토론을 통해 대항담론을 생산하는 다중(多衆)의 부상에 주목해야 한다. 다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느슨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다중은 외교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취함에 있어서 선거와 같은 특정 시기 이외에도 중차대하며 시급한 정책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심각한 논란이 되거나 한번 결정·타결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외교정책 사안에 대해 일련의 집합행동을 추구했다. 이러한 다중의 집합지성과 집합행동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한미 FTA 재협상,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최근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 사안마다 활성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세 모으기 차원을 넘어서 다중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상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 * * *

이 책은 2012년 1학기과 2학기에 진행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세미나인 ‘탈근대세계정치연구: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서’와 ‘정보세계정치연구: 소통과 공감의 세계정치’의 결과물이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학기말 논문으로 제출한 작업을 토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추가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진행하여 다듬어진 8편의 논문을 모았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편집자가 최근에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한 2편의 글을 추가로 실었다. 이 책의 작업에 참여한 일부 필자들은 이미 재작년에 펴낸 『거미줄 치기와 별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한울, 2011)의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두 작업 모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10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일명 SSK)’인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들과의 연구 네트워킹 작업의 결과물이다.

21세기 정보세계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는 집합지성이 아닐까 싶다. 그야말로 이 책은 집합지성의 산물이다. 편집자와 개별 저자, 그리고 세미나 팀 전체의 집합지성이 각각의 논문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학기 중에 진행된 세미나와 중간 및 기말 발표, 방학 중에 이루어진 추가 수정 작업을 위한 발표 및 필자들 상호간의 토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별적 면담의 결과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책에 담긴 글들을 이루었다. 돌이켜 보건대, 전화기를 붙잡고 필자들과 긴 시간 동안 나누었던 대화의 기억이 지금도 가슴 뿌듯하게 떠오른다. 정보세계정치라는 아직 생소한 주제를 어느 기성학자 못지않게 잘 이해하고 따라준 필자들에게 감사한다. 사실 이 글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지적으로 성장하는 후학들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다. 아직 지적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들의 지적 고민의 흔적을 남겨보고 싶은 용기는 아마도 이러한 감회에서 비롯되었나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대-중앙대-건국대의 대학원생 네트워킹 세미나에 참석하여 좋은 코멘트를 주신 중앙대 정치외교학

과의 이승주 교수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와 배영자 교수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밖에도 대학원생 네트워킹 세미나에 참여했던 중앙대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들도 고맙다. 또한 SSK 연구팀의 일원으로 여러 면에서 지원해 주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의 신범식 교수와 조동준 교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의 고봉준 교수, 울산대 정치외교학과와 김치욱 교수에 대한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젊은 학도들의 지적 열의를 높이 사서 두 차례에 걸쳐서 흔쾌히 출판을 맡아 주신 도서출판 한울의 관계자들도 감사한다.

2013년 2월 24일

김 상 배

<목차>

정보세계정치의 이해:

역사와 쟁점 및 전략의 탐색

머리글 정보세계정치의 이해

- 김상배

제1부 정보세계정치의 기원

제1장 한국 인터넷 문화의 역사적 추적: 집합지정보다는 커뮤니티?

- 김상배

제1절 머리말

제2절 지식정보 협업의 두 가지 모델

제3절 동아시아의 '백과사전' 전통과 편찬·편집문화

제4절 지식정보의 나눔 문화와 소통문화

제5절 유학적 지식관과 토론문화

제6절 맺음말

제2장 근대 기술 개념의 전파와 변환: 실학, 동서서기론, 개화론

- 김상배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통 동아시아의 기술 개념

제3절 실학의 기술 개념

제4절 동도서기론의 기술 개념

제5절 개화론의 기술 개념

제6절 맺음말

제3장 근대 인쇄 미디어와 언어 민족주의: <독립신문>의 한글전용론

- 최은실

제1절 머리말

제2절 근대적 미디어의 출현과 민족주의 형성

제3절 근대적 미디어 <독립신문>의 출현과 그 의의

제4절 <독립신문>의 한글전용

제5절 한글과 민족의 관계설정: 언어 민족주의적 사상의 맹아

제6절 맺음말

제2부 정보세계정치의 변환

- 제4장 냉전과 인터넷: 정보 미디어의 국제정치적 구성** - 최인호
- 제1절 머리말
 - 제2절 인터넷과 냉전체제의 구성적 관계
 - 제3절 1950년대 소련의 핵개발과 SAGE의 건설
 - 제4절 소련의 ICBM 개발과 ARPANET의 건설
 - 제5절 맺음말
- 제5장 프랑스 문화외교의 변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중심으로** - 곽민경
- 제1절 머리말
 - 제2절 이론적 배경
 - 제3절 1980년대 프랑스 문화외교 조직 변화의 배경
 - 제4절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한 프랑스 정부의 전략
 - 제5절 프랑스 정부-알리앙스 프랑세즈 조직 변화의 함의
 - 제6절 맺음말
- 제6장 신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NWICO)를 넘어서: 맥브라이드 보고서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 - 황예은
- 제1절 머리말
 - 제2절 국제정치학적 시각
 - 제3절 맥브라이드 보고서와 WSIS 공식 문서의 관념적 유사성 및 차이점
 - 제4절 NWICO 논쟁과 WSIS의 행위자들과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 제5절 국제정보질서의 제도적 측면의 변화
 - 제6절 맺음말
- 제7장 세계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기구의 역할: ITU와 세계은행의 네트워크 전략** - 김지연
- 제1절 머리말
 - 제2절 분석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 제3절 2000년대 이전 ICT4D의 한계: 지식의 부재
 - 제4절 국제기구의 등장: 왜 국제기구여야 하는가?
 - 제5절 네트워크로 보는 ITU의 전략
 - 제6절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은행의 전략
 - 제7절 맺음말

제3부 정보세계정치와 한국

- 제8장 국제 영화제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한국의 전략 - 백지연
- 제1절 머리말
 - 제2절 영화제 시스템의 문화권력
 - 제3절 영화제 네트워크
 - 제4절 한국형 영화제 모델
 - 제5절 맺음말
- 제9장 일본 내 한류 네트워크와 한국 정부의 대응 - 문재연
- 제1절 머리말
 - 제2절 한류 네트워크의 이론적 이해
 - 제3절 한류 기업 네트워크 전략
 - 제4절 일본 소셜 네트워크
 - 제5절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한류 공공외교의 전망
 - 제6절 맺음말
- 제10장 소셜 미디어와 대중의 외교정책태도 - 송태은
- 제1절 머리말
 - 제2절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태도
 - 제3절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와 대중의 출현
 - 제4절 외교정책의 특성과 네트워크 대중의 집합행동
 - 제5절 맺음말